

# A Study on Lee Kyo Seung, the Author of SinJeongSanSul

〈신정산술(新訂算術)〉의 저자 이교승(李敎承)에 관한 연구

CHOI Jong Hyeon 최종현 PARK Kyo Sik\* 박교식

In this study, the life of Lee Kyo Seung(1868~1951), the author of SinJeongSanSul(1~3), is traced in outline. He worked as a teacher at a government elementary school from 1895 to 1906. He contributed to elementary education as one of the first government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the period of the Great Han Empire. During this period, he wrote SinJeongSanSul(1~3). He contributed to secondary mathematics education as a professor at Sungyunkwan for three years from November 1908, and as a mathematics teacher at the YMCA Academy from 1906 to 1916 in the period of the Great Han Empire and early Japanese colonial period. During this period, he wrote two different secondary school mathematics textbooks. During the Great Han Empire and early Japanese colonial period, he was a pioneering textbook author and mathematics teacher. So he can be evaluated as one of the important persons in the history of mathematics education in Korea.

*Keywords:* history of school mathematics education, textbook, the period of the Great Han Empire,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수학교육사, 교과서, 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

MSC: 97A03 ZDM: A32

## 1 서론

대한제국기와 일제강점기 초반의 초등학교 수학교육에 대한 논의에서 빠뜨릴 수 없는 교과서 중의 하나가 〈신정산술(新訂算術)(1~3)〉이다.<sup>1)</sup> 강운호의 1967년 논문 〈개화기의 교과용 도서(1)〉 [24]에서 이 책의 서지 사항 및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 이후로, 현재까지 이 책의 서지 사항은 물론이고 내용에 관한 연구가 적지 않게 이루어져 왔다 [7, 15, 17], [25, p.

---

\*Corresponding Author.

CHOI Jong Hyeon: Dept. of Math. Edu., Gyeongin Univ. of Edu. E-mail: jhchoi08@ginue.ac.kr

PARK Kyo Sik(Prof. Emeritus): Dept. of Math. Edu., Gyeongin Univ. of Edu.

E-mail: pkspark@gin.ac.kr

Received on Jan. 27, 2024, revised on Mar. 10, 2024, accepted on Apr. 24, 2024.

1)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신정산술(1~3)〉을 전자책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249], [26, 28, 30, 39], [51, p. 47], [40, 57]. 강윤희의 1967년 논문, 한길준의 2009년 논문 및 한영균의 2016년 논문에서는 양재건(梁在蹇)이 쓴 서문의 끝에 있는 ‘광무(光武) 5년 8월’을 근거로 이 책 1~3권의 초판이 1901년에 발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15, 17, 24]. 이 서문을 언급하지 않고 이 책 1~3권이 1901년에 발행되었다고 하는 연구도 있다 [30, 57]. 한영균은 1901년에 발행된 것으로 간주하는 <신정산술(1~3)>의 소장처를 모두 제시하고 있다 [17].<sup>2)</sup>

<신정산술(1~3)>에는 저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저자를 언급하지 않은 채 <신정산술>을 소개하는 연구도 있다 [28, 30, 57]. 양재건이 쓴 서문을 근거로 “책의 원래 원고를 쓴 사람”이 이교승(李敎承)이라거나 [51, p. 48], 이교승의 ‘저’ 또는 ‘편저’라고 하거나 [17, 24], 또는 “이교승의 영향을 받아 남원 양재건이 편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기도 하다 [26, p. 84], [39, p. 7].<sup>3)</sup> 이 서문을 언급하지 않은 채 저자가 이교승이라고 하는 연구도 있다 [15], [25, p. 249], [40]. 조영미는 한영균을 인용하여 저자가 이교승이라 하고 있다 [7].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신정산술(1~3)>은 1901년에 초판이 발행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그 저자는 이교승이라고 할 수 있다. 이교승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를 몇몇 연구에서 볼 수 있다 [24, 26], [38, p. 292], [39, 42, 45], [51, p. 49-51].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정보는 대개 이교승 자신이 작성한 이력서를 바탕으로 한다. 이 이력서는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제시되어 있다 [47, p. 685].<sup>4)</sup> 수학사 분야만이 아니라 교육사 등 다른 분야의 연구에서도 이교승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선행연구 중에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연구도 있다 [26], [38, p. 292], [42], [51, p. 49-51]. 게다가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는 <신정산술(1~3)>의 저자가 아닌 동명이인 이교승의 이력서도 있어서 [47, p. 28], 이 두 사람을 혼동한 연구도 있다 [26, 38, p. 292], [42].

이교승이 저술한 교과서는 <신정산술(1~3)>만이 아니다. 그는 <산술교과서(算術教科書)(상, 하)>, <신찬대수학교과서(新撰代數學教科書)>의 저자이면서 이명칠(李命七)이 저술한 <산학통편(算學通編)(상, 하)>의 교열자(校閱者)로 대한제국기 및 일제강점기 초반의 수학교육에 나름대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sup>5)</sup> 그러나 그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 이런 이유에서 이 연구에서는 이교승이라는 인물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선행연구에서 잘못 제시한 정보도 바로잡는다.

2) 이상욱 등은 <신정산술>의 1~3권 중에서 3권은 1906년 이후에 발행된 것만을 찾을 수 있었기에 <신정산술(1~3)>이 1901년에 한꺼번에 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51, p. 47].

3) 김효전의 2012년 논문 [26]에 “이교승의 영향을 받아 남원 양재건이 편집한 것으로 본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이상구과 이재화의 2011년 논문 [39]에서 볼 수 있는 표현이다. 김효전의 논문에는 이상구과 이재화의 논문이 인용되어 있지 않다.

4) 국회도서관에서 <대한제국관원이력서>를 전자책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5) <산학통편(算學通編)(상, 하)>의 초판은 <신정교과 산학통편(新訂教科算學通編)(상, 하)>이지만, 이후에 <중정산학통편(重訂算學通編)(상, 하)>, <정정증보 산학통편(訂正增補算學通編)(상, 하)>과 같은 개정판이 나오게 된다.

## 2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조선·대한제국기 및 일제강점기에 ‘이교승(李敎承)’이라는 이름이 나타나는 여러 문헌을 수집하여 그에 대한 정보를 찾아 확인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먼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李敎承’이라는 이름이 나타나는 문헌에서 그에 대한 정보를 찾아 확인했다. <대한제국관원이력서>를 비롯하여 ‘조선·대한제국 관보’와 ‘조선총독부 관보’ 등에서 이교승의 서임(敍任), 사령(辭令), 포증(褒贈) 기록 등을 찾아 확인했다.<sup>6)</sup>

이러한 1차 자료와 함께, ‘이교승’을 언급하고 있는 수확사, 교육사 분야의 2차 자료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 확인했다. 또 그가 연동교회의 교인으로 ‘대한황성종로기독교청년회’(이하 YMCA)<sup>7)</sup>에서 활발하게 활동했고 [5, 16], 연동교회의 목사였던 게일(James Scarth Gale)의 성경 번역과 영어 자전 편찬 등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기록이 있는 기독교 분야의 문헌 등에서도 관련 정보를 찾아 확인했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찾을 수 있는 이교승은 한 사람이 아니다. 한자 이름이 李敎承인 여러 명의 이교승이 동시대에 살고 있었다. 따라서 먼저 <신정산술(1~3)>의 저자 이교승(이하 ‘저자 이교승’)과 동명이인 이교승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는 ‘저자 이교승’이 아닌 다른 이교승의 이력서를 찾을 수 있다 [47, p. 28]. 그는 1878년생 이교승(이하 ‘경찰 이교승’)으로 동경에서 유학 생활을 했었고 일제강점기에 경찰로 근무했었다. 이 이력서로부터 그는 저자 이교승과 분명히 다른 인물임을 알 수 있다.<sup>8)</sup>

다음으로 ‘저자 이교승’과 한자 이름이 같은 동시대의 인물로 ‘경찰 이교승’ 이외에 ‘군수(郡守) 이교승’과 ‘주사(主事) 이교승’도 있다.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는 이 두 사람의 이력서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대한제국 관보에서 이 두 사람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다. 대한제국 관보 제1553호(1900. 04. 20, 35면)에서 협천 군수에 서임된 이교승을 볼 수 있다. ‘저자 이교승’은 1900년 당시 한성사범학교 교원이었으므로 [47, p. 685] ‘군수 이교승’은 ‘저자 이교승’과 다른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또 대한제국 관보 제4347호(1909. 04. 10, 39면)에 광산군(曠山郡) 재근을 명받은 군주사(郡主事) 이교승을 볼 수 있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한국근현대인물자료>에 따르면, 이 ‘주사 이교승’의 본관은 전주이고 1874년생이므로 [46],

6) 이 연구에서는 조선·대한제국 관보와 조선총독부 관보를 많이 인용하고 있다. 본문에서 관보의 호수와 발행일을 명기하는 대신에 참고문헌에서는 본문에서 각각 인용한 관보를 일괄하여 간단히 ‘조선·대한제국 관보’와 ‘조선총독부 관보’로 나타낸다.

7) 대한황성종로기독교청년회의 영문은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이다. 이것의 약자가 바로 YMCA이다. 대한제국기의 황제(고종 황제와 순종 황제)가 있는 나라이기에 수도(현재의 서울)를 ‘황성(皇城)’이라고 한 것이다 [48].

8) ‘저자 이교승’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세 연구 [26], [38, p. 292], [42] 중에서 두 연구 [26, 42]은 둘째 문헌 [38, p. 292] 즉, 1985년에 발행된 이기준의 <한말 서구경제학 도입사 연구>를 인용하고 있다. 이 책 292쪽에 ‘한말 경제학 관련자’로 이교승의 약력을 소개하고 있다. 이 약력에 ‘저자 이교승’과 ‘경찰 이교승’의 정보가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는 본관이 연안(延安)인 ‘저자 이교승’과 다른 인물임을 알 수 있다 [47, p. 685].

임후남은 <한성사범학교 학적부 자료>를 근거로 ‘저자 이교승’이 1868년에 출생했다고 적고 있다 [45].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서 볼 수 있는 ‘저자 이교승’의 이력서에는 출생연도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이력서를 작성할 당시의 나이로 ‘年삼십칠(연37)’을 적었다 [47, p. 685]. 이 이력서에는 1900년까지의 서임(敍任) 및 사령(辭令) 기록만 적혀 있다. 1905년 11월에 그가 관립소학교의 교원 겸 교장이 되었다는 것을 대한제국 관보 제3295호(1905. 11. 13, 29면)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이력서에는 이 기록이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그는 1900~1905년에 이 이력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저자 이교승’은 1868년에 출생한 연안 이(李)씨로 특정할 수 있다. 초중등학교용 수학 교과서 3종 이외에 그의 다른 저술은 찾을 수 없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교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1차 자료의 객관적 사실 및 2차 자료를 바탕으로 그의 행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교승의 행적을 1906년 2월 13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본다. 1906년 2월 13일은 그가 원에 의해 관립소학교 교원을 그만둔 날이다(대한제국 관보 제3377호, 1906. 02. 15, 31면). 그 이후로 이교승은 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을 강의하게 되며 YMCA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 3 1906년 2월 13일까지의 이교승의 행적

#### 3.1 한성사범학교 입학 전의 행적

이교승의 이력서에 보면, 아버지는 백부(伯父)인 이양재(李亮宰)로 되어 있지만, 생부는 이능재(李能宰)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양재는 1826년생으로 1885년에 증광시(增廣試)에 합격하여 진사(進士)가 되었지만 벼슬한 기록은 없고, 진사가 되기 전에는 유학(幼學)이었다 [1]. 진사가 되기는 했지만, 나이가 많아 출사(出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는 그의 생부인 이능재의 이력서도 있다 [47, p. 62, p. 687-688]. 이능재는 1845년생으로 1885년에 식년시(式年試)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고, 1895년에 성균관의 ‘직원(直員)’으로 임용되었다.<sup>9)</sup> 이교승은 이력서에서 생부 이능재가 성균관 직원이라 적고 있다. 한편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부인 이항익(李恒翼)은 1805년생으로 진주 목사(牧使)를 지냈다 [1].

임후남은 <한성사범학교 학적부 자료>를 근거로 이교승의 전직을 ‘유학(幼學)’이라 적고 있

9) 임후남의 논문 [45]에서는 이능재를 성균관 ‘진원(眞員)’이라 하고 있으나, ‘직원(直員)’을 오독한 것으로 보인다. 員은 眞과 같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민족문화백과대사전>에서는 ‘직원’을 찾을 수 없고 [2],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직원(直員)을 “일제강점기에, 향교나 경학원의 직무. 또는 그 직무를 맡아 하던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48]. 그러나 이 이력서로 보면 일제강점기 이전에도 성균관 직원(直員)이 있었다. 이능재가 임용되던 1895년은 조선 시대였고, 이교승이 이력서를 작성했던 때는 대한제국기였다.

는데 [45], 이교승이 유학이라는 것은 그의 집안 배경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교과서를 저술할 정도로 초중등학교 수학에 밝았다는 것 이외에, 한학(漢學)에도 조예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 문헌을 바탕으로 알 수 있다 [5, p. 90], [43, 4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유학(幼學)은 관직에 아직 오르지 않았거나 과거를 준비하며 학교에 재학 중인 유생(儒生)을 말한다 [2]. 이교승은 한성사범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한학을 공부하면서 과거를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892년 3월 14일의 <승정원일기>에서 ‘유학 이교승’ 등이 별시(別試) 문과(文科) 초시(初試)에 응시하는 것을 고종이 윤허했다는 내용을 찾을 수 있다.<sup>10)</sup> 그러나 이교승이 이 초시를 통과했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이력서에도 그런 내용이 없다.

### 3.2 1900년 8월 6일까지의 행적

이교승의 이력서에서 1894년 11월 15일부터 1900년 8월 6일까지의 기록을 찾을 수 있다. 그는 1894년 11월 15일에 사범학교에서 수학했다고 적었다. 이 사범학교는 갑오개혁 직후인 1894년 9월에 설립된 것이다 [44]. 1894년 7월의 갑오개혁으로 과거 제도가 폐지되자 [2], 사범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사범학교에 입학한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다. 한 학에 소양이 있는 사람을 사범학교의 학생으로 선발했다는 점 [44]을 고려하면, 과거 제도의 폐지로 관직 진출이 어려워진 그에게 사범학교 진학은 관직에 진출할 기회를 주었다고 볼 수 있다. 1895년 5월에 한성사범학교가 새롭게 설립되면서 이 사범학교는 그대로 흡수·통합되고 학생들도 그대로 편입되었다 [44].

이교승은 1895년 8월 1일 사범학교 속성과 ‘특별 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고<sup>11)</sup> 이틀 뒤인 1895년 8월 3일 관립소학교 교원에 임용되었다(조선·대한제국 관보 제0130호, 1895. 08. 06, 1면) [45, 47]. 선행연구 [26, 38]에서 이교승이 ‘1894~1895년’에 한성사범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이력서로 보면 이교승은 1895년 8월 1일에 한성사범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러나 이 특별 시험에 대한 기록을 조선·대한제국 관보에서 찾을 수 없다. 선행연구 [20, 45, 55]에서도 이 특별 시험에 대한 논의를 찾아볼 수 없다.<sup>12)</sup>

이교승과 같은 날 관립소학교 교원에 임용된 김성진(金聲鎭)의 이력서를 보면(조선·대한제

10) 한국사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승정원일기>를 찾아 볼 수 있다. 1892년 3월 14일의 <승정원일기>에서 찾을 수 있는 ‘유학 이교승’은 ‘저자 이교승’과 동일인이라 할 수 있다. 이교승이 한성사범학교 학적부에 전직을 ‘유학’이라고 적은 것이 근거가 된다 [45]. 1982년 이전에 관직이 있던 ‘이교승’은 ‘유학 이교승’과는 다른 인물이다. 또 ‘경찰 이교승’과 ‘주사 이교승’도 ‘유학 이교승’과는 다른 인물이다. 1892년에 그들은 각각 14살, 18살에 불과했다. 주사 이교승은 학력으로 ‘한문(漢文) 수학’이라고 적었지만, 그것이 ‘유학’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유생(儒生)은 이미 한문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식자(識者)이다 [2].

11) 이력서에 ‘우등(優等)’이라는 표현이 있다 [47, p. 685].

12) 한편 한성사범학교를 연구한 古川昭의 <구한말 근대학교의 형성>에서는 ‘이교승’이라는 이름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조선·대한제국 관보 제0130호를 인용하지도 않고 있다 [20]. 古川昭는 한성사범학교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교승은 알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 관보 제0130호, 1895. 08. 06, 1면) [47, p. 149], 1895년 7월에 한성사범학교 졸업 증서를 받은 것(受師範學校卒業證書)으로 되어 있다. 한편 1895년 8월 9일에 관립소학교 교원에 임용된(조선·대한제국 관보 제0135호, 1895. 08. 12, 3면) 원영의(元泳義)의 이력서 [47, p. 617]에는 1895년 8월 1일에 ‘속성과 제1회 특별 시험(우등)’을 치른 것으로 되어 있다. 이교승과 원영의는 8월 1일의 특별 시험을 통해 졸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김성진은 다른 기준으로 졸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의 한성사범학교 졸업 인정 기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다만 출중한 학생의 경우에 적절한 기준에 따라 관립소학교의 교원(敎員)으로 임용한 것으로 보인다 [45].

당시 한성사범학교의 부속 소학교였던 교동의 관립소학교 이외에 4곳에 관립소학교가 더 있었다 [22, 56]. 이교승은 1896년 5월 7일에 한성사범학교의 ‘교원’으로 전보된다(조선·대한제국 관보 제0321호, 1896. 05. 09, 9면). 1896년 5월에 이교승이 한성사범학교의 ‘교관(敎官)’이었다는 선행연구가 있으나 [26, 38], [51, p. 50],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당시 한성사범학교에는 사범학교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과 교관의 직무를 돕는 ‘부교관’ 이외에(교동에 있던) 부속 소학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있었다(조선·대한제국 관보 제0017호, 1895. 04. 19, 4면, 칙령 79호). 이상욱 등이 이교승이 “자충교원으로 한성사범학교에 임용된 후 부교관을 거쳐 교관이 되었다”고 한 것과 “관립사범학교의 현직 교수”라고 한 것 [51, p. 50-51]은 사실이 아니다. 당시에 교동의 관립소학교 이외에 다른 지역에도 관립소학교가 있었지만 [22], 하나의 학교처럼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관립소학교 교원의 임용에서도 근무지를 명시하지 않은 채 단지 ‘관립소학교 교원’이라고 되어 있다 [56].

이교승의 이력서에 보면 1899년 11월 10일 경효전 존작례 별단에 작세위 담당으로 ‘6품’으로 승급했다(景孝殿奠酌禮別單以爵洗位 陞六品)는 기록이 있다. 실제로 1899년 9월 23일의 대한제국 관보 호외 1의 ‘경효전 3주제시 별단(景孝殿三周祭時別單)’에서 한성사범학교 교원 이교승이 6품으로 승급(陞六)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sup>13)</sup>

1899년 10월 12일에 이교승이 포증을 받은 기록을 대한제국 관보에서 볼 수 있다(조선·대한제국 관보 제1390호, 1899. 10. 12, 23면). 담당한 학생의 3분의 1이 진급 또는 졸업했기 때문에 포증을 받은 것으로, 이 포증을 두 번 받으면 승급할 수 있다(조선·대한제국 관보 제1325호, 1899. 07. 27, 1면, 학부령 제10호) [45]. 1900년 3월 15일에도 같은 이유로 포증을 받은 기록을 대한제국 관보에서 볼 수 있다(조선·대한제국 관보 제1522호, 1900. 03. 15, 27면). 이 포증 기록에서는 이교승을 ‘한성사범학교 교원’으로 특정하는 대신 ‘관립소학교 교원’이라고 있다. 이교승이 한성사범학교의 부속 소학교인 교동 소학교에 근무했기에 관립소학교

13) 경효전(景孝殿)은 명성 황후의 신위를 모시던 혼전(魂殿)이고, 별단(別單)은 임금에게 올리는 주본(奏本)에 덧붙이던 문서나 인명부를 말한다 [48]. 이교승은 제사에서 술잔을 씻는 자리인 작세위(爵洗位)를 담당한 관원의 역할로 승급한 것이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제공하는 <한국고전용어사전>에 따르면, 승급은 정7품 이하 참하(參下)의 품계(品階)에서 중6품 이상의 참상(參上)으로 오르는 것을 말한다 [4].

교원이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교승의 신분은 적어도 1900년 8월 6일까지는 한성사범학교 교원이었음을 대한제국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조선·대한제국 관보 제1647호, 1900. 08. 08, 21면). 이 관보에서 한성사범학교 교원 이교승을 판임관(判任官) 1등으로 승서(陞叙)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 3.3 1906년 2월 13일까지의 행적

이교승의 이력서에는 1900년 8월 7일 이후의 기록이 없지만, 조선·대한제국 관보에서 그의 행적을 찾을 수 있다. 먼저 이교승이 담당한 학생의 3분의 1이 진급 또는 졸업했기 때문에 이교승이 1900년 10월 4일부터 1905년 7월 12일까지 여러 차례 포증을 받은 기록을 대한제국 관보에서 볼 수 있다(조선·대한제국 관보 제1696호, 1900. 10. 04, 12면; 제1910호, 1901. 06. 11, 22면; 제2052호, 1901. 11. 23, 62면; 제2177호, 1902. 04. 16, 35면; 제2269호, 1902. 08. 24, 8면; 제2464호, 1903. 03. 19, 23면; 제2614호, 1903. 09. 10, 19면; 제2811호, 1904. 04. 27, 58면; 제2913호, 1904. 08. 24, 원문 없음; 제3092호, 1905. 03. 21, 45면; 제3189호, 1905. 07. 12, 27면). 이교승의 포증 기록은 있지만, 징계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이것으로 보면 이교승이 관립소학교의 교원으로 상당한 능력을 보였다 할 수 있다.

이 포증 기록에서도 이교승을 관립소학교 교원이라 하고 있으므로, 이 기록만으로는 그가 한성사범학교의(교동 소학교) 교원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관립소학교의 교원이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1905년 7월 31일 이후에 원에 의해 그만둘 때까지도 대한제국 관보에서는 이교승의 신분이 계속 관립소학교 교원으로 나타나고 있다(조선·대한제국 관보 제3205호, 1905. 07. 31, 70면; 제3257호, 1905. 09. 29, 56면; 제3277호, 1905. 10. 17, 48면; 제3295호, 1905. 11. 13, 29면; 제3377호, 1906. 2. 15, 31면).

양재건의 서문을 고려하면 이교승은 1901년에 <신정산술(1~3)>을 저술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지만, 이 책의 판권지가 없으므로 발행 연도가 1901년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다. 다만 앞에서는 이 서문의 끝에 있는 ‘광무 5년’을 근거로 이 책이 1901년에 발행된 것으로 간주했다. 이상욱 등 [51, p. 47]은 <신정산술(1~3)>이 1901년에 한꺼번에 발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았다. 현재까지 찾을 수 있는 <신정산술>의 신문 광고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을 1902년 1월 7일의 황성신문 3면에서 볼 수 있다 [19]. 이 광고에서는 이 책 1권과 2권만을 광고하고 있다. 이것으로부터 그때는 3권이 발행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신정산술(3)>의 신문 광고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을 1903년 4월 8일의 제국신문 3면에서 볼 수 있다 [23]. 이 광고에서 비로소 ‘신정산술 1질 3책’이라는 표현을 볼 수 있다. 이 광고로 보면, <신정산술(1~3)>은 한꺼번에 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신정산술(1~2)>는 늦어도 1902년 초에, <신정산술(3)>은 늦어도 1903년 초에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

<신정산술 1>에서는 기수법, 덧셈, 뺄셈을 취급한다. <신정산술 2>에서는 덧셈과 뺄셈의

혼합계산, 곱셈, 그리고 덧셈, 뺄셈, 곱셈이 있는 혼합계산을 취급한다. <신정산술 3>에서는 나눗셈,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계산, 그리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모두 있는 혼합계산을 취급한다.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에서 <신정산술(1~3)>을 전자책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sup>14)</sup> 이교승이 저자임을 말해주는 양재건의 서문은 <신정산술 1>에만 있다. 이 서문의 내용은 이상구와 이재화의 논문에 자세히 나와 있다 [39].

양재건은 관직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했던 인물이다.<sup>15)</sup> 어떤 연유로 양재건이 이 책의 서문을 쓰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상구와 이재화가 번역한 서문에 보면, 양재건이 이교승을 극찬한 것을 볼 수 있고, 또 “십 년을 부지런히 고학하여 깊이 있게 연구한 공이 있고 다섯 수레나 되는 책을 파서 전문적인 배움의 책을 저술하여”라고 한 것을 보면 [39], 이교승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1901년 당시에 양재건은 <신정산술>을 출판한 광문사(廣文社)에서 다양한 출판 활동을 했지만 [29], 단지 영업의 차원에서만 이런 서문을 쓴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개인적인 친분으로 이런 서문을 쓰게 된 것일 수도 있지만, 이교승과 양재건이 동년배는 아니다. 양재건은 1852년에 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교승은 1868년에 출생했기 때문이다.<sup>16)</sup> 이교승도 연동교회의 교인이고 [16]<sup>17)</sup>, 양재건도 연동교회의 교인이지만, 양재건이 연동교회에 입교한 것은 1904년이므로 [6, p. 40], 1901년에 연동교회의 교인이라는 친분으로 이 서문을 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교승은 연동교회 교인으로 1903년 10월에 창립된 YMCA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5, 16]. 1904년 후반기에 YMCA 이사회에서는 그를 교육부 간사로 임명했다 [5, p. 90]. 전택부는 이교승이 “수학에 능한 수재형 교육자이며, 매일의 한문 선생이기도 했다.”라고 적고 있다 [5, p. 90]. 전택부는 1915년생이므로 이교승과 동시대의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이교승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1908년에 발행된

14) 이것은 한영균의 논문 [17]이 발표된 2016년 이후에 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15)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서는 양재건의 이력서를 볼 수 없지만, 조선·대한제국 관보와 조선총독부 관보에서 양재건의 관직 경력을 찾아볼 수 있다. 1894년 4월 24일의 <승정원일기>에 보면 ‘출신(出身) 양재건’을 광무국(礦務局)의 주사로 등용하는 것을 고종이 윤허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출신(出身)은 조선시대에 문과(文科: 大科)·무과(武科)·잡과(雜科) 등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2]. 양재건은 과거에 합격한 후 이때 처음으로 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 아산 현감을 거쳐 아산 군수가 되지만(조선·대한제국 관보, 1894. 07. 14, 호수 없음, 3면), 1896년 3월에 원에 의해 그만두게 된다(조선·대한제국 관보 제0284호, 1896. 03. 27, 1면). 대한제국기인 1906년 4월에 외국어학교 교관으로 복귀하고(조선·대한제국 관보 제3438호, 1906. 04. 27, 47면), 1906년 12월에 안의 군수(조선·대한제국 관보 제3649호, 1906. 12. 29, 85면), 1908년에 거창 군수로 전임했다(조선·대한제국 관보 제3971호, 1908. 01. 15일, 41면) 일제강점기인 1911년 3월에 거창 군수에서 면관(免官)된다(조선총독부 관보 제0155호, 1911. 03. 09, 76면).

16)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인 조창용(趙昌容, 1875~1948)이 남긴 <백농실기(白農實記)> 40쪽에 보면 1907년 3월에 황성 연동예배당 사찰위원의 명단이 있는데, 이 명단에 조창용과 함께 당시 외국어학교의 교관이었던 양재건이 있다 [6]. 이 책의 원문은 독립기념관에서 전자책 형태로 볼 수 있다. 이 명단에 양재건의 나이가 55세로 나와 있는 것으로부터 그가 1852년에 출생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재건은 이교승보다 16살이나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17) 강윤호는 국사편찬위원회 편 <각회사조사(各會社調査)>를 인용하여, 이교승이 연동교회의 전도사를 지낸 바 있다고 했다 [24].



것으로 보이는 소책자 <대한황성종로기독교청년회>에 보면 교사부(教師部)에 이교승이라는 이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58].<sup>18)</sup> 이교승은 1905년에 11월 17일에 관립소학교에 교원 겸 교장이 되지만, 1906년 2월 13일 불과 석 달 만에 원에 의해 그만두게 된다(조선·대한제국 관보 제3295호, 1905. 11. 13, 29면; 제3377호, 1906. 2. 15, 31면).

## 4 1906년 2월 14일 이후의 이교승의 행적

### 4.1 1911년 11월 11일까지의 행적

이교승은 관립소학교를 그만둔 후에 여러 사립중등학교에서 수학을 강의했던 것으로 보인다. 1906년 10월 4일의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YMCA의 학생 모집 광고에서 ‘교사 이교승’이라는 이름을 볼 수 있다 [31]. 1908년 6월 19일의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YMCA의 학생 모집 광고에서는 ‘강사 이교승’이라는 이름을 볼 수 있다 [32]. 1908년 6월 19일의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연동경신학교(蓮洞敬信學校)의 사범과 학생 모집 광고에서도 ‘강사 이교승’이라는 이름을 볼 수 있다 [33].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교승은 1907년 2월부터 1908년 2월까지 보성전문학교의 강사로 있었고 [38], 1908년 3월부터 1909년 12월까지 양정의숙에 출강했다 [26].

이교승은 1908년 7월에 <산술교과서(상, 하)>를 편술한다. 이 책의 내용에 관한 선행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이 책은 보통학교 학생용이 아니라 사립학교에서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을 위한 교과서로, 1909년 1월 28일에 학부(學部)의 검정을 통과한다(조선·대한제국 관보 제4312호, 1909. 02. 27, 102면). <산술교과서(상)>에서는 정수(整數) 및 정수의 계산과 정수의 성질, 분수 및 소수와 그 계산, 그리고 순환소수를 취급한다. <산술교과서(하)>에서는 제등수(諸等數), 비와 비례, 백분산(百分算)과 이식산(利息算), 개방법(開方法), 급수, 구적법을 취급한다.<sup>19)</sup>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에서 <산술교과서(상)>을 전자책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또 연세대학교 도서관에서 <산술교과서(하)>를 전자책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sup>20)</sup> 한영균의 논문에는 이 책의 교열자(校閱者)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17], <산술교과서>의 판권지에서 이교승(李敎承)이 ‘편술자’, 이면우(李冕宇)가 ‘교열자’임을 알 수 있다.<sup>21)</sup> 그러나 일제강점기인 1914년 3월 31일에 조선총독부에 의해 이 책은 검정 효력을 잃게 되고

18) 이 소책자의 도서 카드에 ‘융희 2년’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보면, 이 소책자는 1908년에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연세대학교 도서관에서 전자책 형태로 제공하고 있지만, 쪽수가 붙어 있지 않다. 사사부(司事部)의 임원 명단은 표지부터 세어 4쪽에 있다.

19) 제등수(諸等數)는 명수(名數) 즉, 단위를 붙여 표시하는 수를 의미한다. 백분산(百分算)과 이식산(利息算)은 각각 백분율이 있는 계산과 이자, 원금 등을 구하는 계산을 의미한다. 개방법(開方法)은 제곱근, 세제곱근, 네제곱근, ... 을 구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20) 이것은 한영균의 논문 [17]이 발표된 2016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1)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서 이면우의 이력서를 볼 수 있다 [47, p. 489]. 이면우는 관립일어학교를 졸업한 후에 일본의 동경법학원대학 법률학전과(法律學全科)를 졸업한 후에 한성재판소 검사 시보를 지냈다. 또 경성공소원 판사를 지냈다 [42].

(조선총독부 관보 제504호, 1914. 04. 08, 87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14년 10월에 발행된 <교과용도서일람(8판)> 11쪽에서도 <산술교과서(상, 하)>의 검정이 무효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1].

이교승은 1908년 6월에 초판 발행된 이명칠(李命七) 저술(著述)의 <신정교과 산학통편(新訂教科算學通編)> 상하권 합본을 교열(校閱)하기도 했다.<sup>22)</sup> <산학통편>에서 취급하는 내용은 <산술교과서(상, 하)>에서 취급하는 내용과 거의 같다. 다만 <산술교과서(하)>에서는 제곱근과 세제곱근을 구하는 것을 취급하고 있지만, <산학통편>에서는 네제곱근 이상을 구하는 것도 취급하고 있다. 한영균의 논문에서는 이교승이 교열자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17]. 1908년판 <신정교과 산학통편>의 판권지에는 이교승이 교열자라는 것이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각 권의 본문이 시작되는 쪽에서 ‘이교승 교열’을 확인할 수 있다. 판권지가 없는 <중정산학통편(重訂算學通編)>, <정정증보산학통편(訂正增補算學通編)>에서도 각 권의 본문이 시작되는 쪽에서 ‘이교승 교열’을 확인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1908년판 <신정교과 산학통편> 상하권 합본과 1913년판 <중정산학통편> 상하권 합본을 전자책 형태로 제공하고 있고, 국회도서관에서는 1919년판 <정정증보산학통편> 상하권 합본을 전자책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sup>23)</sup>

이교승은 관립소학교를 그만둔 지 2년 9개월 후인 1908년 11월 13일에 성균관의 ‘교수’로 관직에 복귀한다(조선·대한제국 관보 제4230호, 1908. 11. 17, 41면) [39].<sup>24)</sup> ‘교수’는 이전에 ‘교관’이라고 부르던 명칭이 바뀐 것이다. 1907년 12월 13일의 칙령 제55호에 의해 ‘교관’ 및 ‘부교관’이 ‘교수’ 및 ‘부교수’로, 교원 및 부교원이 ‘훈도’ 및 ‘부훈도’로 명칭이 바뀌었다 [21]. 그 당시 성균관이 3년제의 근대적인 고등교육기관으로 바뀌면서, 교과목에 산술 이외에 대수와 기하가 포함되었다 [27]. 당시 사립학교에서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위한 <산술교과서(상, 하)>의 저자인 이교승이 산술 이외에 대수 등도 강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균관의 교수로 임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교승은 1910년에는 <신찬대수학교과서(新撰代數學教科書)>를 저술한다. 이 책의 내용에 관한 선행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한영균의 논문에서는 김봉희의 책 [25]에 기록된 이 책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17]. 한영균의 논문이 발표된 2016년까지는 이 책의 실물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이 책은 성균관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은 사립학교에서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을 위한 교과서였다. 이 책은 1910년 1월 10일에 학부의 검정을

22) <대한제국관원이력서> 및 <대경성공직자명감>에서 이명칠(李命七)의 이력을 찾아볼 수 있다 [37, p. 113-114], [47, p. 89, 687].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대경성공직자명감>을 전자책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1886년생인 이명칠은 관립한어(漢語)학교를 졸업한 후에 한어학교, 경신학교, 협성실업학교, 송도고등보통학교에 근무했다.

23) 이것은 한영균의 논문 [17]이 발표된 2016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4) ‘교수 이교승’은 ‘저자 이교승’과 동일인이라고 할 수 있다. 관보에서 ‘육품(六品)’이라는 품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근거가 된다(조선·대한제국 관보 제4230호, 1908. 11. 17, 41면). 또한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대한제국 직원록’에 ‘교수 이교승’, ‘경찰 이교승’, ‘주사 이교승’이 동시에 등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통과한다(조선·대한제국 관보 제4765호, 1910. 08. 24, 138면). <신찬대수학교과서>에서는 양수와 음수 및 그 사칙계산, 일차방정식 및 일차연립방정식, 이차방정식 및 이차연립방정식, 인수분해, 분수방정식, 승幂(乘幕) 및 역근(幕根), 대수(對數), 비와 비례, 급수, 순열 및 조합, 이항정리 등을 취급한다.<sup>25)</sup> 1910년 5월 25일의 대한매일신보에 나온 이 책의 광고에 ‘학부 검정의 효시’가 되었다는 문구를 볼 수 있다 [34].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교승이 1908년에 편술한 <산술교과서(상, 하)>가 1909년 1월 28일 이미 학부 검정을 통과한 바 있다(조선·대한제국 관보 제4312호, 1909. 02. 27, 102면). 이 책도 일제강점기인 1914년 3월 31일에 조선총독부에 의해 검정 효력을 잃게 되지만(조선총독부 관보 제504호, 1914. 04. 08, 87면), 실제로는 적어도 1917년까지는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1914년 10월에 발행된 <교과용도서일람(8판)> [11, p. 7], 1915년 12월에 발행된 <교과용도서일람(9판)> [12, p. 7], 1917년 11월에 발행된 <교과용도서일람(11판)> [13, p. 7]에 여전히 조선총독부의 검정 교과용 도서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1907년과 1909년에 양재건을 편집자로 하는 <신정산술(3)>이 발행되는데, 이 책은 1901년판 <신정산술(3)>과 동일한 것이다 [17]. 이 일로 이교승은 1910년에 <신정산술>의 저작권을 두고 양재건과 송사를 벌이게 된다 [39]. 1909년 5월 8일 통감부 공보 100호에 보면, 양재건은 1909년 4월 8일에 <신정산술>의 저작권을 통감부 특허국에 등록했고 이때 저작물은 ‘新訂算術 一部一冊’으로 되어 있다 [52]. 이것의 의미는 1책으로 된 <신정산술> 1부로, <신정산술(1~3)> 중 3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저작일은 1901년 8월 25일, 발행일은 1901년 8월 25일이라고 신고하면서 등록출원일은 1909년 3월 26일로 하고 있다. 1909년 11월 27일 통감부 공보 129호에 보면, 이교승도 1909년 10월 25일에 <신정산술>의 저작권을 통감부 특허국에 등록했고, 이때 저작물은 ‘新訂算術’로 되어 있다[53]. 이것으로 보면 <신정산술(1~3)> 전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저작일과 발행일을 모두 1909년 8월 20일이라고 신고하면서 등록출원일은 1909년 10월 25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1910년에 <신정산술>의 저작권을 두고 소송이 벌어졌고 [26, 39], 결국 양재건이 등록한 저작권은 1910년 6월 29일에 취소되었다 [54]. 이렇게 해서 <신정산술 1~3>의 저작자는 이교승으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양재건을 저작자로 한 <신정산술>이 사용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1910년 1월에 발행된 <교과용도서일람(4판)> [35, p. 9]과 1910년 7월에 발행된 <교과용도서일람(5판)> [36, p. 10]에 보면 이교승 저작의 <산정산술>과 양재건 저술의 <신정산술> 모두 학부의 인가를 받은 교과용 도서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인 1912년 1월에 발행된 <교과용도서일람(6판)> 14쪽에 보면 양재건 저작의 <신정산술>은 조선총독부 인가 교과용 도서로 안내되고 있지만, 48쪽에 보면 이교승 저작의 <신정산술>은 ‘불인가’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9]. 따라서 이교승 저작의 <신정산술>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25) 승幂(乘幕)은 거듭제곱을, 역근(幕根)은 거듭제곱근을, 그리고 대수(對數)는 로그를 의미한다.

보인다. 이에 비해 1913년 3월에 발행된 <교과용도서일람(7판)> [10, p. 16]), 1914년 10월에 발행된 <교과용도서일람(8판)> [11, p. 19], 1915년 12월에 발행된 <교과용도서일람(9판)> [12, p. 19], 1917년 11월에 발행된 <교과용도서일람(11판)> [13, p. 10]에 보면 양재건 저작의 <신정산술>은 여전히 인가 교과용 도서임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인 1911년 3월에도 이교승은 여전히 YMCA 학관의 “주간부 선생”으로 활동했다 [5, p. 154]. 1911년 10월 31일에 이교승은 성균관 교수에서 조선총독부 도서기(道書記)로 전임되지만(조선총독부 관보 제0360호, 1911. 11. 8, 38면), 불과 열흘 정도 지난 11월 11일에 원에 의해 도서기를 그만두게 된다(조선총독부 관보 제0365호, 1911. 11. 14, 96면). 이후로는 관직을 맡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4.2 1911년 11월 12일 이후의 행적

이교승이 관직을 물러난 이후의 행적을 YMCA 관련 문헌에서 드물게 찾아볼 수 있다. 이교승은 연동교회의 교인으로서 YMCA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교승은 YMCA가 운영하던 사립학교인 ‘학관(學館)’의 중학부 교사로 오랫동안 근무하였다. 1916년 9월에는 파락만(巴樂滿, Frank Marion Brockman)과 육정수(陸定洙), 이교승의 10주년 기념 사은회가 열렸다는 기사를 볼 수 있다 [8].<sup>26)</sup> 이것으로 보면 이교승은 1906년 2월 13일에 관립소학교 교원을 그만두고(대한제국 관보 제3377호, 1906. 02. 15, 31면), 바로 YMCA 학관의 중학부 교사로 전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교승이 관립소학교 교원을 그만둘 당시에는 ‘교원 겸 교장’(조선·대한제국 관보 제3295호, 1905. 11. 13, 29면)이 된 지 불과 3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고, 포증 기록으로 볼 때 소학교 교원으로서 탁월한 능력을 보이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원에 의해’ 그만두었다는 것은 당시 막 설립된 YMCA 학관의 중학부 교사를 하기 위해 고의로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 이교승은 소학교 교원을 그만둔 후로는 줄곧 중등학교 수학을 강의했던 것으로 보인다. 성균관 교수에서 조선총독부 도서기로 전임되자 곧바로 도서기를 그만두고(조선총독부 관보 제0365호, 1911. 11. 14, 96면) YMCA 학관의 중학부 교사로 매진한 것으로 보인다. 도서기로 있으면서 동시에 주간부 선생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원에 의해’ 도서기를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

이교승은 YMCA 학관의 주간부 선생을 하면서 YMCA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1914년 4월 제1회 조선기독교청년회 연합회에 중앙청년회대표 16명 중의 1명으로 참석한 기록을 볼 수 있다 [5, p. 194]. YMCA는 조선총독부의 압력을 받아 1916년에 겨울에 중학부를 폐지하기로 결의했다 [5, p. 212], [8]. 이에 따라 이교승도 더 이상 수학

26) <대한황성종로기독교청년회>의 사사부(司事部)의 간사위판(幹事委辦) 명단에서 공동총무 파락만(巴樂滿)과 부학감 육정수(陸定洙)의 이름을 볼 수 있다 [58, p. 4]. 매일신보 1916년 9월 7일 2면의 기사에서 파락만은 학관의 설립자, 육정수는 관장, 이교승은 강사라고 하고 있다 [8]. 이 기사에서 파락만(巴樂萬)의 萬은 滿의 오식으로 보인다.

강의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이교승은 연동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계일을 도와 성경 번역, 한영자전 편찬 등에 도움을 주었다 [3], [14, p. 443]. 1925년에 계일이 펴낸 <신역 신구약전서>의 한국어 번역 과정에서 이교승(李敎承) 등의 도움이 컸다고 한다 [41].<sup>27)</sup>

이교승의 1930~40년대 및 사망하기까지의 행적은 찾을 수 없었다. 피퍼(Daniel Pieper)가 편집한 <Redemption and Regret: Modernizing Korea in the Writings of James Scarth Gale>에서 이교승의 사망 연도를 1951년으로 특정하고 있다 [14, p. 443쪽의 각주].<sup>28)</sup> 계일은 1937년에 사망했으므로, 이교승의 사망 연도는 피퍼가 확인했을 것이다.<sup>29)</sup>

## 5 결어

이 연구에서는 대한제국기와 일제강점기 초반에 사용된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인 <신정산술(1~3)>의 저자 이교승의 행적을 살펴보고 있다. <신정산술(1~3)>에 관련된 연구가 적지 않고, 따라서 이 교과서에 관한 정보도 많이 알려져 있는 편이다. 상대적으로 이교승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서 볼 수 있는 그의 이력서로부터 1894~1900년 사이의 행적은 확인할 수 있다.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서 이교승의 이력서로 두 개를 찾을 수 있는데, 이 두 이교승은 서로 다른 인물이다. 한 사람은 '저자 이교승'이지만 다른 한 사람은 '경찰 이교승'이다. 그런데 저자 이교승과 동시대에 살았던 여러 명의 동명이인 이교승이 더 있다. 이들과 저자 이교승을 구별할 수 있게 해 주는 핵심어로 '유학(幼學)'과 '육품(六品)'이 있다. 저자 이교승의 전직이 유학이고, 그의 품계가 육품이었다. 또한 저자 이교승의 출생연도가 1868년으로 특정되는 것도 동명이인 이교승과 저자 이교승을 구별할 수 있게 해 준다.

이교승은 과거를 준비했으나 갑오개혁으로 과거 제도가 폐지되자 사범학교 입학으로 진로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관보에 제시된 그의 포증 기록은 그가 학생 지도에 상당한 능력을 발휘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신정산술(1~3)>은 그가 관립소학교 교원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저술되었다. 이교승은 관립소학교 교원으로 11년 정도 근무한 후에 YMCA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YMCA 학관 중학부의 수학 교사로 10년 정도 활동했다. 이 기간에는 중등학교 수학을 강의했던 것으로 보인다. 1908년 11월부터 3년간 성균관의 교수로 관직에 복귀하기 전까지 경신학교, 보성전문학교, 양정의숙에도 출강했다. 일제강점기인 1911년 10월 31일에 도서기로 전임되자 곧바로 그만두고 YMCA 학관의 중학부의 수학 교사로 학생 지도에 진력한 것으로 보인다. <산술교과서>와 <신찬대수학교과서>는 그가 YMCA

27) 연동교회 홈페이지의 '교회 역사' 중 '계일 목사 시대'에서 계일과 이원모, 이창직, 이교승이 1908년에 함께 찍은 사진을 볼 수 있다 [18]. 이 사진에서 가장 오른쪽의 인물이 이교승으로 보인다.

28) 이 책에서 이교승의 영문 이름은 'Yi Kyosung'으로 되어 있다. 현재 이 책은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다.

29) 피퍼는 이교승의 출생연도는 제시하지 않았다. 또 그의 사망 연도를 확인할 수 있었던 출처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퍼가 어떤 경로로든 이교승의 사망 연도는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학관의 교사로 활동하는 동안에 저술되었다.

이교승은 한성사범학교에서 1년 정도 수학하고 특별 시험을 통해 졸업을 인정받으면서 곧바로 관립소학교의 교원이 되었다. 그가 수학과 관련하여 별도의 교육을 받았던 것은 아니다. 양재건의 서문에 따르면 이교승은 초·중등학교 수학을 독학한 것으로 보이지만, 수학을 독학한 이유는 알 수 없다. 개인적인 관심을 두고 독학하여 초·중등학교 수학 교과서를 저술할 정도의 실력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1916년 겨울에 YMCA 학관의 중학부가 폐지되면서 그도 수학 강의를 더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자신이 다니던 연동교회의 게일 목사가 성경을 번역하고 한영자전을 편찬하는 일 등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그 이후의 행적은 찾을 수 없었다. 고령으로 대외적인 활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교승은 1951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이때 그의 나이는 83세였다. 이교승은 일본에 유학한 적도 없고 전문적으로 수학을 배운 적도 없지만, 초·중등학교 수학 교과서를 저술한 능력자였다. 그는 한성사범학교를 정식으로 졸업하지 않았다. 그 대신 우수한 성적으로 특별 시험을 통과해 졸업을 인정받고, 곧바로 관립소학교의 교원이 되었다. 그는 관립소학교의 최초의 교원 중의 한 사람으로 그 시대의 초등교육에 이바지했다. 또한 그는 성균관의 교수 및 YMCA 학관의 중학부 교사로 조선말, 대한제국기 및 일제강점기 초반의 중등학교 수학교육에서도 선구자적인 기여를 했던 인물 중의 한 명이었다. 이런 이유에서 이교승은 대한제국기 및 일제강점기의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수학교육의 역사에서 빠뜨릴 수 없는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관련 문헌이 더 발굴되어 그의 생애를 온전히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지기를 기대한다.

## References

1.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for Korean People of All Time.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2.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 민족문화대백과사전.
3. AN Yelee, A modern Korean and Gale's Korean-English dictionary, *Christian Thought* 754 (2021), 64–105. 안예리, 근대 한국어와 게일의 한영자전, *기독교사상* 754 (2021), 64–105.
4. The commemorative business meeting for the Great king Sejong, *Dictionary of Korean Classical Terms*,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국고전용어사전.
5. CHUN Taik Boo, *History of YMCA*, Seoul: Hongsungsa, 2017. 전택부. 한국기독교청년회운동사. 서울: 흥성사, 2017.
6. CHO Chang-yong, *BaikNongSilKi*, 1914. 조창용, 백농실기(白農實記), 1914.
7. CHO Youngmi, A study on elementary mathematics education in the age of enlightenment, *Journal of the Korean School Mathematics Society* 21(2) (2018), 161–181. 조영미, 개화기 초등수학교육 재음미,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21(2) (2018), 161–181.

8. The Daily News, page 2 (1916. 09. 07, article). 매일신보, 2면 (1916. 09. 07, 기사).
9. The Government-General of Chosen, *List of Textbooks*, the sixth edition, 1912. 조선총독부, 교과용 도서 일람, 6판, 1912.
10. The Government-General of Chosen, *List of Textbooks*, the seven edition, 1913. 조선총독부, 교과용 도서 일람, 7판, 1913.
11. The Government-General of Chosen, *List of Textbooks*, the eighth edition, 1914. 조선총독부, 교과용 도서 일람, 8판, 1914.
12. The Government-General of Chosen, *List of Textbooks*, the ninth edition, 1915. 조선총독부, 교과용 도서 일람, 9판, 1915.
13. The Government-General of Chosen, *List of Textbooks*, the eleventh edition, 1917. 조선총독부, 교과용 도서 일람, 11판, 1917.
14. Gale, J. S., *Redemption and Regret: Modernizing Korea in the Writings of James Scarth Gale*. Pieper, D. (edit.),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21. (한국어 번역본 없음)
15. HAN gil jun, A study on the arithmetic text books of Gwangmu-Yunghee period in Korea, *The Korean Journal for History of Mathematics* 22(4) (2009), 83–96. 한길준, 개화기의 산술교과서에 대한 고찰, *한국수학사학회지* 22(4) (2009), 83–96.
16. HAN Kyu-moo, James S. Gale's perception of Korea and its influence on the Korean church: Focusing on 1898–1910, *Christianity and History in Korea* 4 (1995), 161–176. 한규무(1995), 게일(James S. Gale)의 한국 인식과 한국 교회에 끼친 영향: 1898~1910년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4 (1995), 161–176.
17. HAN Young-Gyun, A study on the mathematics textbooks in the era of the Great Han Empire, *Hanguk Munhwa* 73 (2016), 207–238. 한영균(2016). 대한제국기의 산학(수학) 교재류에 대한 기초적 연구, *한국문화* 73 (2016), 207–238.
18. Homepage of Youndong Church. 연동교회 홈페이지 (www.ydpc.org).
19. The HwangSeong Sinmun, page 3 (1902. 01. 07, advertisement). 황성신문, 3면, (1902. 01. 07, 광고).
20. Hurukawa Akira, *The Formation of Modern Schools at the End of the Korean Empire*, Lee Seong Ok (trans.), Seoul: Gyeongin munwhasa, 2006. 古川昭, 구한말 근대학교의 형성, 이성옥(역), 서울: 경인문화사, 2006.
21. JEON Min-ho, A study on the education policy of Tonggambu in the Hakkyoryonggi: Focusing on the placement of the staff and teachers in the Hakbu and the public school,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43 (2012), 495–530. 전민호, 학교령기 통감부의 교육정책 연구: 학부 및 학부 산하 기관의 교직원 배치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43 (2012), 495–530.
22. JEON Min-ho, CHOI Seung-hyun, A study of the government primary school in the enlightenment period,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22(3) (2016), 5–30. 전민호, 최승현, 개화기 관립소학교(보통학교)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22(3) (2016), 5–30.
23. The JeGuk Sinmun, page 3 (1903. 04. 08, advertisement). 제국신문, 3면 (1903. 04. 08, 광고).
24. KANG Yoon-ho, Historical survey on the educational textbook compilation in Korea during 1987–1910(1), *Collection of Writings of Korea Culture Research Institute* 10 (1967), 9–69. 강윤호, 개화기의 교과용도서(1),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10 (1967), 9–69.
25. KIM Bong-Hee, *A Study of Book Culture in the Enlightenment Period of Korea*, Seoul: Ewha

- womans university press, 1999. 김봉희, 한국 개화기 서적 문화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9.
26. KIM Hyo-Jeon, Legal education in Yangchung college, *Korean Journal of Legal History* 45 (2012), 49–100. 김효전, 양정의숙의 법학교육, *법사학연구* 45 (2012), 49–100.
  27. KIM Jong Jun, A study on the policies, finance, and operations of Sungkyunkwan during the Great Han Empire, *The Korean History Education Review* 137 (2016), 75–106. 김종준, 대한제국기 성균관 정책과 재정 및 운영 실태, *역사교육* 137 (2016), 75–106.
  28. KIM Jung-Hyo, LEE Hai-Ji, Educational contents and methods of Korean public elementary schools between 1895 and 1905, *The Journal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6(2) (2003), 51–76. 김정효, 이해지, 관·공립소학교의 교육내용과 방법의 분석을 통한 개화기 초등교육의 성격에 대한 재평가: 1895–1905를 중심으로, *교육과정평가연구* 6(2) (2003), 51–76.
  29. KIM Seon-hee, The modern publication of pre-modern literature and its significance: the change of intellectual accreditation in Korea's enlightenment era, *The Journal of Korean Classics* 46 (2015), 257–283. 김선희, 전근대 문헌의 공간(公刊)과 근대적 호명: 근대 계몽기 지적 공인(公認)의 변화, *민족문화* 46 (2015), 257–283.
  30. KIM Yong-Un, KIM Yong-Kuk, *History of Korean Mathematics*, Paju: The Sallimbooks, 2009. 김용운, 김용국, 한국수학사, 파주: 살림출판사, 2009.
  31. The Korea Daily News, page 3 (1906. 10. 04, advertisement). 대한매일신보, 3면(1906. 10. 04, 광고).
  32. The Korea Daily News, page 3 (1908. 06. 19, advertisement). 대한매일신보, 3면 (1908. 06. 19, 광고).
  33. The Korea Daily News, page 3 (1908. 06. 30, advertisement). 대한매일신보, 3면 (1908. 06. 30, 광고).
  34. The Korea Daily News, page 3 (1910. 05. 25, advertisement). 대한매일신보, 3면(1910. 05. 25, 광고).
  35. The Korean Empire, *List of textbooks*, the fourth edition, 1910. 대한제국, 교과용 도서 일람, 4판, 1910.
  36. The Korean Empire, *List of textbooks*, the fifth edition, 1910. 대한제국, 교과용 도서 일람, 5판, 1910.
  37. Kyongseong newspaper company, *List of Public Officials in Great Kyongseong*, 1936. 경성신문사, 대경성공직자명감, 1936.
  38. LEE ki-jun, *A Study on the History of Introduction of Western Economics at the End of the Korean Empire*, Seoul: Iljogak, 1985. 이기준, 한말 서구경제학 도입사 연구, 서울: 일조각, 1985.
  39. LEE Sang-Gu, LEE Jae Hwa, A study on mathematics books of Joseon Dynasty, *Communications of Mathematical Education* 25(1) (2011), 1–19. 이상구, 이재화, 조선시대 산서(算書) 연구: 규장각 소장 산서 연구의 분석을 중심으로, *수학교육논문집* 25(1) (2011), 1–19.
  40. LEE Sang-Gu et al, Mathematics textbook in Korea (1880–2016), *Communications of Mathematical Education* 31(1) (2017), 149–177. 이상구, 이재화, 김영구, 이강섭, 함윤미, 한국 근·현대 수학 교재 연구, *수학교육논문집* 31(1) (2017), 149–177.
  41. LEE Sang Gyoo, A brief history of the Korean translations of the bible, *Kosin Theological Journal* (2011), 230–258. 이상규, 한글 성경은 어떻게 번역되어 우리 손에 들려지게 되었을까? *고신신학* 2011, 230–258.



42. LEE Tae Hoon, Composition and characteristics of early 'social science' recipients in Korea, seen through character investigation, *The Korean Cultural Studies* 22 (2012), 7-55. 이태훈, 인물 조사를 통해 본 한국 초기 '사회과학' 수용 주체의 구성과 성격, *한국문화연구* 22 (2012), 7-55.
43. LIM Hee-kuk, Portrait of confucian scholars from social-political reformer to christian during the late 19th~early 20th centuries, *Keimyung Korean Studies Journal* 60 (2015), 329-353. 임희국,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반 사대부 혹은 유생 출신 기독교인들의 신앙 범주에 관한 소고, *한국학논집* 60 (2015), 329-353.
44. LIM Hu-Nam, The fostering of the primary school teachers in moder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0(1) (2003a), 269-291. 임후남, 한국 근대초등교원의 양성, *한국교원교육연구* 20(1) (2003a), 269-291.
45. LIM Hu-nam, The elementary teachers as the enlightened officials in modern Korea, *Asian Journal of Education* 4(1) (2003b), 105-132. 임후남, 개명관료(開明官僚)로서의 근대 교원, *아시아교육연구* 4(1) (2003b), 105-132.
46.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Data base of Korean History.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47.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Resumes of Officials of the Korean Empire. Seoul: Tamgudang, 1972. 국사편찬위원회, 대한제국관원이력서, 서울: 탐구당, 1972.
48.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Standard Korean Dictionary*,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49. The official gazette of Chosen and the Korean Empire. 조선·대한제국 관보.
50. The official gazette of the Government-General of Chosen. 조선총독부 관보.
51. REE Sangwook et al, *Anaysis of Mathematical Textbooks in the Enlightenment and Japanese Colonial Periods*, Korea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Acience & Creativity, 2014. 이상욱, 김영욱, 오채환, 이장주, 개화기와 일제강점기 수학 교과서 분석 연구, 한국과학창의재단, 2014.
52. The Residency-General, public notice No. 100(1909. 05. 08, copyright registration). 통감부, 공보 100호 (1909. 05. 08, 저작권 등록).
53. The Residency-General, public notice No. 129(1909. 11. 27, copyright registration). 통감부, 공보 129호(1909. 11. 27, 저작권 등록).
54. The Residency-General, public notice No. 162(1910. 07. 23, cancellation of copyright registration). 통감부, 공보 162호(1910. 07. 23, 저작권 등록 취소).
55. Ro In wha, A study on Seoul normal school in the period of Great Han Empire, *Ewha Sahak Yeongu* 16 (1985), 13-14. 노인화, 대한제국 시기의 한성사범학교에 관한 연구, *이화사학연구* 16 (1985), 13-24.
56. Ro In wha, A study on the public primary school in Great Han Empire, *Ewha Sahak Yeongu* 18 (1988), 445-482. 노인화, 대한제국시기 관립소학교의 연구, *이화사학연구* 18 (1988), 445-482.
57. SEOL Han-Guk, LEE Sang-Gu, Sang-Seol LEE: father of Korean modern mathematics education, *The Korean Journal for History of Mathematics* 22(3) (2009), 79-102. 설한국, 이상구, 이상설: 한국 근대 수학교육의 아버지, *한국수학사학회지* 22(3) (2009), 79-102.
58.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1908. 대한황성종로기독교청년회, 1908.